2025년 공연시장 상위권 공연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 ① 연극, 뮤지컬, 무용 편(2025년 1분기, 상반기, 3분기 상위 10개 공연 티켓판매 규모 및 비중)

* 본 콘텐츠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2025년 1분기, 상반기 3분기 티켓판매현황분석보고서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 매일 단위로 예매·취소 값이 발생하는 공연예매데이터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추출 일자가 다를 경우, 결괏값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KOPIS 티켓판매현황보고서는 1분기, 상반기, 3분기에 발행되었다. 티켓판매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공연계는 공연건수 및 공연횟수, 총 티켓예매수, 총 티켓판매액 등 모든 면에서 성장했다.

공연시장 전체	2023년	2024년	2025년
공연건수(건)	13,158	14,683	16,381
공연회차(회)	82,794	87,595	96,591
티켓예매수(매)	14,303,385	15,781,627	17,226,389
티켓판매액(원)	831,623,524,614	1,028,440,426,077	1,202,914,805,818
공연 1건 당 평균 티켓판매액(원)*	130,103,167	139,693,761	146,053,315
공연 1회차 당 평균 티켓판매액(원)**	20,415,623	23,690,353	25,199,896
티켓 1매당 평균 티켓판매액(원)***	117,299	130,886	140,004

*티켓판매액÷공연건수 / **티켓판매액÷공연회차 / ***티켓판매액÷티켓예매수

티켓판매현황보고서에는 장르별 티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의 비중과 상위 20개 작품을 공개하고 있다. 티켓판매액이 높은 공연은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장르의 상위권 공연의 비중은 1분기 30%, 상반기 17.4%, 3분기 27.9%로 나타났다. 상위권 공연들을 보면, 1분기, 상반기, 3분기 모두 대중음악, 뮤지컬 장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형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장르 위주의 공연이 티켓판매액 상위 공연을 독차지하고 있다. 즉, 타 장르에 비해 대중음악과 뮤지컬 장르가 대형 공연장에서 높은 티켓 1매당 평균 티켓판매액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상위권 공연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연시장에서 어떤 공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각 장르별 1분기, 상반기, 3분기의 상위권 분석을 통해 2025년 공연시장 트렌드를 2편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편에서는 연극, 뮤지컬, 무용 장르의 2025년 공연시장 트렌드를 분석해보았다.

연극

소수 공연에 편중되는 현상

1~3분기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연건수와 티켓예매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티켓판매액은 감소했다. 1,000석 이상 대극장 작품의 경우, 지난해 배우들의 화제성으로 연이은 매진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작년만큼의 파워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4분기에 공연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짧은 기간이긴 했으나 이전보다 커진 규모로 대극장을 채운 점이 인상적이다. 중소극장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신작이 등장했다. <스타크로스드>, <타인의 삶>, <미러> 등 티켓판매액과 관객의 호평 모두를 잡은 작품도 있었다. 재연작 중에는 같은 작가의 작품인 <카포네 트릴로지>가 상반기에, <벙커 트릴로지>가 하반기에 공연되며 전석 매진되었다.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시리즈에 대한 관객들의 충성도가 높기에 가능한 성과다. 또한 다양한 창작지원 프로그램 및 2차 제작 지원 덕분에 소극장에서 반가운 재연작과 창작진을 다수 만날 수 있었다. 단순한 체감으로는 매진 소식이 들려오거나 티켓팅의 열기가 치열한 작품이 있었으나 소수의 공연에 집중되었고, 공연건수가 늘어난 만큼 각 공연장의 빈자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 배우의 무대 늘어



<바닷마을 다이어리>



<셰익스피어 인 러브>

지난해에 이어 유명 배우들의 무대 출연이 이어졌다. <셰익스피어 인 러브>, <헤다 가블러>와 같은 대형 공연장 규모의 작품은 물론 <꽃의 비밀>,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 소극장 공연도 마찬가지다. 위 작품들은 모두 각 분기 및 상반기 티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유명 배우가 출연한 몇몇 작품은 화제성에 그쳤지만, 관객점유율과 별개로 대중에게 연극에 대한 접점을 높여준 것은 확실해 보였다.

퀴어, 이민자, 노동자, 노인 세대 등 사회의 여러 면을 비추려는 연극계의 고민은 언제나처럼 계속되었다. 소재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한 배리어프리 공연의 수도 그 결과물이다. 장르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인 만큼, 국공립 극장 중심으로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 반갑다. 더불어 무대 위에 장애인 배우의 자리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당사자성을 가진 배우들이 직접 연기함으로써 무대 위의 이야기를 극장 밖으로 뻗어나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만큼 여러 공연장의 물리적인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대학로 최고 화제작: 미러



<미러>

유명 배우가 출연하지 않은 초연작 중에는 엠비제트컴퍼니의 <미러>가 가장 큰 화제를 모았다. 웨스트엔드에서 2023년에 공연된 최신작으로, 검열을 소재로 현실과 허구를 오가며 관객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반전이 중요한 작품인 만큼 예매처와 공연 정보에 특정 등장인물을 비공개로 유지한 점, 관객들 사이 입소문을 타며 궁금증을 유발한 점도 흥행에 한몫했다. 이에 예매가 진행된 '예스24 티켓' 사이트 내 '뮤지컬·연극' 예매 순위에서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꾸준히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올해 대학로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2025년 3분기 연극 티켓판매액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체험형 공연인 이머시브 작품도 눈에 띄었다. 뮤지컬로 분류되는 <슬립 노 모어> 초연이 규모로 존재감을 알린 것과 달리, 중소극장에서의 명상 체험, 극장 탐험 등 다양한 색깔의 이머시브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기존의 공간을 공연장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연극 <미궁의 설계자>는 지난 6월 정식 개관한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관객 이동형 공연을 선보였다. 기존에는 일반 극장에서 공연된 이 작품이, 극의 배경이 된 실제 공간에서 관객들을 만난 것. 국립극단의 청소년극 <섬×희곡×집>도 공간의 특징을 십분 활용한 작품이다. 서계동 옛 국립극단 건물을 자유로이 오가며 관객이 각자의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영화관을 활용한 <샤롯데 더 플레이: 서바이벌>도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2026년 연극 기대작은?

국립극단이 2개년에 걸쳐 진행하는 <안트로폴리스> 5부작 중 3개 작품이 남아있다. 먼저 무대에 올랐던 두 작품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기에, 남은 공연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기대를 모은다. 다만 5개의 작품이 어떤 연결고리와 차별점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역대 최연소 단장을 맞이한 서울시극단의 행보, 올해 <미러>로 대학로를 달군 엠비제트컴퍼니가 선보일 2개의 신작도 흥미롭다. 창단 30주년을 맞이하는 극단 백수광부의 한 해도 기대해 볼 만하다.

또한 하나의 장르로 분류하기 어려운 융복합극이 계속해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연극을 기반으로 음악과 무대 연출에서 스펙터클한 규모를 보여주거나, 무용적 요소가 추가되는 등 전통적인 장르 구분으로는 소화되지 않는 작품들이 증가하는 것. 한가지 장르로만 한정하기에 아쉬운 작품들은 주로 뮤지컬로 분류되는데, 그 안에서 관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뮤지컬

2025년 뮤지컬 성장의 이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뮤지컬 시장은 외형적으로는 성장세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총 티켓판매액 규모는 증가했지만, 공연 1건당 평균 티켓판매액은 소폭 감소해 개별 작품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올해 제작사들이 다양한 작품을 대거 선보이며 공급이 크게 확대된 만큼, 매출 증가는 작품의 흥행력보다는 공연건수와 공연회차 증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증된 인기작들이 높은 객석점유율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을 견인한 반면, 인지도가 낮거나 경쟁력이 약한 작품들은 점유율이 떨어지며 작품 간 성과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도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 들어섰던 2023년과 비교해도 평균 티켓판매액이 줄어든 점은 시장 확장이 반드시 작품 단위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도 올해를 어려운 시기 중 하나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으로 뮤지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기 침체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다양한 뮤지컬 작품들이 꾸준히 등장하고 관객층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산업의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공급 확대를 넘어 작품성과 관객 경험의 질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면, 한국 뮤지컬 시장은 다시 한 번 의미 있는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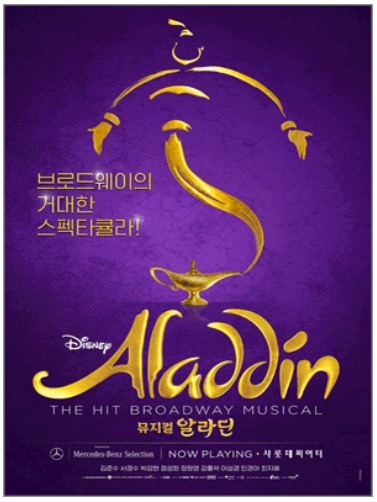
안정 택한 대극장, 세계로 나아가는 K-뮤지컬



<두낫디스터브>



<어쩌면 해피앤딩>



<알라딘>

전반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올해 대극장 무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알라딘>, <지킬앤하이드>, <팬텀>, <위키드> 내한공연, <맘마미아>, <미세스 다웃파이어>, <데스노트>, <킹키부츠>까지 대부분 흥행을 입증한 스테디셀러들이 2025년 라인업을 채우며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완전한 의미의 모험적 신작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는, 시장 내 작품 간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대극장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과도 맞닿아 있다. 사실상 유일한 초연작인 <알라딘>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히트작이었기에 과감한 모험으로 보긴 어렵다. 그럼에도 2025년은 한국 뮤지컬의 세계적 존재감을 확인한 해이기도 하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어워즈 6관왕을 차지했고, <위대한 개츠비>는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 진출해 K-뮤지컬의 역량을 글로벌 무대에 증명했다. 이는 한국 뮤지컬의 세계화 가능성을 현실적인 목표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 제작사가 향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동성애 소재 극의 확장과 록 뮤지컬의 부상

올해 중소극장에서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이 특히 두드러졌다. <와일드 그레이>, <랭보>, <베어 더 뮤지컬> 등 기존 인기작은 물론, <두 낫 디스터브>, <모리스>, <하트셉수트>, <올랜도 인 버지니아> 같은 신작들이 잇달아 개막하며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각 작품은 성적 지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서로 다른 장르적 접근과 주제 해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관객의 선택 폭을 넓혔고, 이는 꾸준한 회전문 관람으로 이어지며 흥행을 견인했다.



<백작>



<마하고니>

록 기반 뮤지컬의 부상도 올해 중소극장 작품이 보여준 뚜렷한 흐름이었다. 사도세자와 영조의 서사를 새롭게 해석한 <쉐도우>를 비롯해 <마하고니>, <트레드밀>, <백작>, <트레이스 유> 등 다양한 작품이 등장하며 장르 스펙트럼을 확장했다. 특히 콘서트에 가까운 분위기의 커튼콜은 록 뮤지컬 특유의 에너지로 관객의 호응을 끌어내며, 취향이 뚜렷한 관객층을 중심으로 한 확실한 수요층을 만들어냈다.

대형 이머시브 공연의 탄생으로 주목받는 경험 중심 무대

대형 이머시브 공연 <슬립노모어>의 등장은 올해 공연계의 새로운 흐름을 상징하는 사례다. 그동안 <위대한 개츠비>, <금란방>, <그레이트 코멧>, <룰렛> 등 이머시브 콘셉트를 활용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른 바 있지만, 건물 전체를 활용한 대규모 제작 방식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객이 건물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이야기를 스스로 조합해 나가는 <슬립노모어>의 구조는 기존의 수동적 관람 방식과 뚜렷이 구분된다. 움직임 자체가 공연 경험으로 연결되는 능동적 관람 방식은 관객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렸고, 한동안 주춤했던 국내 이머시브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6년 뮤지컬 기대작은?

내년 역시 풍성한 라인업이 예고되어 있다. 그중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무대화한 뮤지컬 <프로즌>이다.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를 대극장 스케일로 재현하는 이 작품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숙한 넘버와 판타지 장면으로 폭넓은 관객층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기대작은 앨리샤 키스의 음악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헬스키친>이다. 1990년대 뉴욕 맨해튼을 배경으로 한 자전적 성장 스토리로, 꿈과 사랑을 좇는 주인공의 여정을 그린다. 'If I Ain't Got You', 'Girl On Fire' 등 국내 관객에게도 익숙한 곡이 다수 등장하며, 2024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2년 만에 한국에서 선보이는 최신작이라는 점 역시 기대를 높인다.

무용

신규 무용단 창단, 해외 발레단 내한, 스테이지 파이터

장르별 편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작품 수 증가와 관객 수 확대가 모두 체감되고 있다. 먼저 작품 수 증가를 체감한 주요 요인으로는 신규 단체의 잇따른 창단과 외연 확장을 꼽을 수 있다. 2024년 창단한 서울시발레단이 올해 정규 시즌을 전면 운영했으며, 부산오페라하우스발레단은 시즌 발레단 체제로 운영 중인데 올해 대한민국발레축제를 통해 서울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활동 기반을 넓혔다. 또한 2024년 4월 개관한 GS아트센터가 '예술가들' 시리즈 등 무용 중심의 기획 공연을 선보였다. 더불어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 파리 오페라 발레단, 런던 로열 발레단 등 해외 주요 발레단의 갈라 공연이 한 해 동안 서울에 집중적으로 몰린 한 해였다. 관객 증가 또한 현장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2024년 9월~11월 방영된 '스테이지 파이터'의 인기가 실제 공연 관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내며, 2025년 공연 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가시화되었다. 프로그램 출연 무용수가 참여한 공연의 경우 콘서트장을 연상케 할 정도의 높은 호응도와 환호성과 함께, 신규 관객층이 확대되었다.

스타 무용수 중심 캐스팅, 검증된 레퍼토리



<미메시스>



<백조의 호수>



<지젤>

올해 두드러진 경향으로는 스타 무용수 중심의 캐스팅 강화, 미디어 노출을 통한 신진 무용수의 부상, 안정적 레퍼토리 중심의 편성 등이 관찰된다. 특히 스타 무용수와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립발레단은 박세은을 기용한 <지젤>을 선보였고, 유니버설발레단은 3월 <지젤>에 전민철, <백조의 호수>에는 다닐 심킨을 게스트로 초청하며 화제를 모았다. 국립정동극장도 전문 무용수는 아니지만 채시라 배우를 <단심>에 캐스팅하여 관심을 끌었다. 또한 '스테이지 파이터'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진 무용수들이 실제 티켓 파워를 확보하면서, 주요 단체들의 캐스팅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서울시무용단이 기무간과 함께한 <미메시스>와 서울시발레단의 <No More>에 강경호를 캐스팅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작품 구성 측면에서는 대형 신작보다는 이미 검증된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국내에서는 2003년 초연 이후 다섯 차례 공연하며 10만 명 이상을 동원한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가 6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고, 2000년 LG아트센터의 개관작이었던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도 25년 만에 재공연되었다.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는 <바디콘서트> 10주년을 맞아 약 2주간 장기 공연을 진행했으며, 서울시무용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무>를 무대에 올리며 레퍼토리로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다른 장르와 결합, 앰비규어스컴퍼스,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일무>



<스트릿 우먼 파이터>

올해 주목할 만한 경향으로는 무용 공연 외적 활동을 통한 관객 접점 확대를 들 수 있다. 기존에도 발레단·무용단의 오픈 클래스 형태의 참여 프로그램은 있었으나, 올해는 무용 이외의 경험 영역으로 확장하는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세종문화회관은 <일무> 공연은 분재 프로그램으로, <미메시스>는 드로잉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공연과 예술적 경험을 결합한 다양한 기획이 눈에 띄었다.

또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현대무용 장르에서 보기 드문 지속성과 대중성을 기반으로, 일종의 '현대무용계의 클래식'을 구축해가고 있는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민간단체로서 <바디콘서트> 한 작품을 약 2주간 장기 공연을 실시한 점은 현대무용 장르에서는 쉽지 않은 성과이다. 특히 지원금 없이 자체 역량으로 운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대중무용 분야의 성장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연건수는 전년 대비 6건 증가, 공연회차 역시 9회 증가로 절대적 증가폭은 크지 않았으나, 티켓예매수는 약 두 배, 티켓판매액은 약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티켓 1매당 평균 티켓판매액에도 불구하고 관객 수요가 크게 확대된 결과이다. 핵심 요인으로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관련 공연의 흥행인데, 일부 지역 공연이 취소되었음에도 서울 공연은 약 2만 석이 전석 매진되는 등 무용 장르에서 이례적 수준의 티켓 파워가 확인되었다.

2026년 무용 기대작은?

내년도에는 '스테이지 파이터' 출신 무용수들의 활동 확대가 지속될 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보인다. 특히 '스테이지 파이터' 출신 발레 무용수들이 여럿 보유한 윤별발레컴퍼니는 창작발레 <갓>의 흥행으로 국내 신진 발레단 중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구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의 유사성으로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내년 상반기에도 전국투어를 예고하고 있어 신생 발레단으로서 추이가 주목된다.

아직 주요 단체들의 내년 레퍼토리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는 제한적이나, 서울시발레단, GS아트센터 등 비교적 신설된 단체들이 2~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어떤 작품을 통해 조직적 안정화와 레퍼토리 구축을 시도할지 지켜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올해 '스테이지 파이터'의 인기로 무용의 대중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대한 평가와 의견은 다양하지만, 관객 저변이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객층이 자연스럽게 무용의 매력을 발견하며 애정을 갖게 되는 흐름은 긍정적인 선순

환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발레에 비해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분야는 상대적으로 화제성이 부족한 측면도 확인되고 티켓판매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한국무용에서는 대극장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일무>를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상연될 수 있는 작품이 많지 않아 보인다. 단발성 스타 캐스팅만으로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한 작품이 필요한 때이고 해외에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일송(책공장 이안재 대표)
공연문화 월간지 <씬플레이빌> 편집장을 시작으로, 서울무용센터 웹진 <춤:in>,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국제교류 정보 플랫폼 <더아프로> 편집장을 지냈다. 현재 희곡, 평론, 아카이빙 등 공연 관련 도서 전문 출판사인 책공장 이안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발레단 소식지 보내드림 <POINT & FLEX> 편집장을 맡고 있다.

손정은(연극)
월간지 시어터플러스 편집장.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등 공연 예술을 전하는 월간지 '시어터플러스'에서 편집장을 지내고 있다. 전신인 '씬플레이빌'을 거쳐 창간부터 함께했다.

이우진(뮤지컬)
공연전문매체 '플레이디비' 기자 출신으로 공연 토크쇼 '월요라이브' 시즌 1·2의 MC를 맡아 공연계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해왔다. 현재는 뮤지컬·연극 디지털매거진 '위키더뮤지컬(instagram.com/wikithemusical)'을 기획·총괄하며, 공연전문 인터뷰어로서 각종 공연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황동희(무용)
영자신문사 코리아헤럴드 기자. 4년차 문화부 기자다. 공연 중 무용, 전통과 연극을 중심으로 취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무용 장르를 가장 선호한다. 좋은 공연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해외에 널리 알리려 한다.